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339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1년 4월 7일 수요일(음력 2월 26일)

한라산 들녘 질주하는 승용마들 6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말 방목장에서 국내산 승용마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산 승용마 100여 마리를 4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한라산 난지축산연구소 초지에 방목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논란 재점화

道 "법정 부담금 상위법 위반 소지… 재차 유권해석"

교육부 "지자체별 부담 달라도 합산시 5% 조건 충족"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정부가 정한 법정 부담금 비율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다시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중 도가 내야하는 법정 부담금의 비율이 상위법에 어긋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에 조만간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고시된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12%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 이 고시에 따라 올해 도내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2억원 중 12%인 29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213억원은 도 교육청(47.5%·115억원)과 국가(40.5%·98억원)가 냈다.

지난해 말 도와 도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도는 2017년부터 법정 전출금(도세) 비율을 3.6%에서 5%로 인상해 매년 도 교육청에 1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교육청이 이 법정 전출금을 활용해 지난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지원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법령 해석과 고시를 근거로 도가 29억원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섰다.

급기야 도는 지난해말 2021년도 예산안에 무상교육 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논란 끝에 도가 29억원을 부담하며 무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했다.

도는 29억원 지원 결정 이후 법제처에 무상교육 부담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가 지난 1월 "교육부와 협의하라"며 반려하자, 이번에 교육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쟁점은 상위법 위반 여부다. 지자체별 무상교육 부담금을 정한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시·도, 시·군·구가 전출해야 하는 무상교육 금액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장관이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액을 고려해 책정하다 보니 부담률은 경기도 2.9%, 대전 3.1% 등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제주 부담률은 전남(13.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반면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시·도, 시·군·구의 무상 교육 전출비율을 5%로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부담 비율이) 5%로 나왔는데 이 비율을 넘겨 고시로서 제주의 부담비율을 12%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부담 비율은 다르지만, 각 지자체가 내는 부담금을 합산해 평균을 내면 정확히 5%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에 지자체별 부담금을 합산한 뒤 평균을 내 5%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식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유권해석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상민기자

'포스트코로나와 제주공동체' 세미나

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와 제주학연구센터는 오는 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고승한 전 제주연구원 연구실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공동체 현실과 과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과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원장이 각각 '코로나19와 제주지역 가족의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민·다문화·외국인 공동체'를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한영진 코로나특위 위원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상민기자

제주자치도-지방해양경찰청-종합병원-민간기업

긴급재난 상황 골든타임 확보 '맞손'

실시간 출동 등 공동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한라병원 등 도내 종합병원 6곳, SK텔레콤 자회사가 보다 신속하게 긴급재난상황에 대응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전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119상황실, 응급의료기관, 제주해경 등이 '국민 안전 증대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긴급 상황 공유 및 실시간 출동 등 공동 협력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해경과 의료기관 등이 긴급출동 차량에 대한 도착 예정 시간 제공 등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응급 환자 구조 및 응급실로의 이송 전원 등을 위해 응급차량에 고정밀 GPS 단말기를 설치하고, 구급 차량 출동을 관제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이송을 담당한다.

민간기업 티맵모빌리티(Tmobility(주))는 실시간 교통 정보, 긴급차량 출동 시 안내(구급차 등)를 T맵 가입자들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주관한 '20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사업'으로, 17억 6000만원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이 실시간 상황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도로 위 안전을 제고하고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 환자 이송에 119상황실,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긴급출동 차량의 실시간 정보 공유로 응급환자 이송 등이 이뤄짐에 따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대로기자

카지노 매출 줄며 관광진흥기금 타격

전년 대비 매출 60% 감소… 도, 40억 부과 그쳐

제주도내 8개 카지노의 2020년 잠정 매출액은 약 69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8개 카지노의 2020년 잠정 매출액은 약 690억원 규모로, 2019년 1903억원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제주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수가 2020년 16만6873명으로, 2019년 36만9409명 대비 55%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해 이용객 대부분이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규 입국 고객은 사실상 전혀 없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휴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액도 약 40억원대로, 2020년 151억원 대비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앞두고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에 대한 매출액 조사를 시행한다

제주자치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산정의 투명성 제고와 세밀한 검증을 위해 회계전문가를 선임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카지노업 영업준칙 보고 매출액 ▷재무제표 관련 사항 ▷게임계약서 및 계약게임 관련 사항 ▷카지노 회계기록 및 관리 실태 등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6일 18시 기준 확진 637(1) / 백신 접종 1차 12,910(765), 2차 656(656)

i:rum GALLERY
이룸갤러리 개관기념
이진휴 작가전 | Lee, Jin Hyu

¿Después...Qué?
그리고... 그 이후는?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www.irumgallery.com
Picasso / A
121 x 127 cm
Mixed media

Me & Lenin's Overlap
114 x 144 cm
Mixed media

From the inside
125 x 165 cm
Mixed media

기간. 2021. 04. 07 ~ 05. 02 장소. 이룸갤러리
문의. 010-9882-8119
초대의 말씀 | 현시대의 감정과 문화를 현대미술작품으로 표현해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통하는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제주지역과 국내외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발견하고, 보존하며,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소중한 고견 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담 이희숙 관장 올림
작가 소개 | 대한민국 서울생
국립마드리드 미술대학 및 대학원졸업(스페인)
싱가폴&베이징 양갤러리 전속작가
주요전시활동
·국내외 개인전 34회 (스페인, 싱가폴, 베이징, 국내 등)
– 2021 이룸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제주
– 2020 YTN 방송국 아트스퀘어, 서울
– 2019 싱가폴힐튼 양갤러리, 싱가폴
• 국내외 아트페어 및 미술제 다수 참여
– 국내 아트페어 KIAF, 아트부산 등
– 싱가폴 아트스테이지, 싱가폴
– 베이징 비엔날레, 베이징
– 뉴욕 코리안아트쇼, 뉴욕
• 국내 조형물 설치 및 기획 다수 참여
이룸갤러리 AD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 PHONE. 070-7795-5000 E-MAIL. irumgallery@naver.com